



世界 각국의 情報通信市場 동향

미국

AT & T와 GTE, ISDN 合作

AT & T와 GTE가 ISDN사업의 공동추진에 합의, 合作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合作형태는 GTE가 주식의 51%를, AT & T가 경영권을 각각 갖게 된다.

FCC, CATV사업개방 제안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화회사의 CATV사업 참여를 허가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하였다. 이는 점차 그 수가 줄어 침체되어 가는 CATV업계에 경쟁원리를 도입키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현재 전화회사는 케이블법('84)에 의해서 CATV시스템의 운영회사를 갖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GTE, 장거리전화로부터 철수

미국 제3위의 위치에 있는 장거리전화회사 US스프린트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GTE가 독립하게 된다. GTE와 유나이티드 텔레커뮤니케이션즈(UT)는 US스프린트의 주식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데, UT가 GTE의 지분을 매수, 경영권을 장악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장거리전화시장은 기존이나 신규 사업자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U.S.스프린트로부터의 GTE의 독립도 US스프린트의 계속되는 적자에 그 원인이 있다.

IBM, 他社제품도 수리

IBM이 타사제품의 보수를 포함한 컴퓨터 보수서비스 사업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여러 메이커의 기종을 혼합 사용하는 이용자가 늘어 이른바 「멀티벤더시대」

가 되고 있는 현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보수 시장은 앞으로도 급격히 성장, 오는 91년에는 210억불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미국 제4위 장거리전화사 설립

미국에서 4번째의 장거리전화사가 생긴다. 독립계의 지방장거리전화회사 사전네트와 텔레코넵트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최근 합의하였다. 同社는 영업대상으로 同社 회사의 기반이 되고 있는 東南·中西部를 연결하는 게릴라적인 서비스를 전개할 예정인데, 5백억불 시장으로 확대된 장거리전화시장에 이색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AT & T, IBM 高速패킷 채용

AT & T와 IBM은 X.25보다 10배의 속도를 갖는 새로운 패킷교환방식 「프레임중계」를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 X.25에 의한 패킷교환망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레이어3까지만 고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통신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디지털회선이 일반화되면 전송로의 신뢰성이 좋아져서 고도 통신처리가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레이어2만으로 교환처리를 종결지어도 실용상 문제가 안생긴다. 「프레임중계」는 이러한 ISDN의 유저망 사이의 D채널용 프로토콜, LAPD의 기본적인 부분만을 베이스로 개발한 방식으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올해에 권고된 CCITT(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의 I.122로 정의되어 있다. 90년까지 상세표준이 결정되고 92년에는 프로토타입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IBM, X/OPEN에 참가

IBM이 컴퓨터 기본소프트(OS)의 규격통일을 하기 위한 「X/Open」에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이유는 X/Open이 UNIX의 환경정비에 강력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AT & T 대용량 光전송 실용화

AT & T는 내년중에 매초 7G비트의 光전송시스템을 실용화한다. 이에 따라 하나의 光화이버를 전화로 환산해서 약 9만 7천회선분의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光화이버케이블과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한 光전송시스템은 NTT와 AT & T가 大容量化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뉴욕타임즈, 전자편집 본격도입

뉴욕타임즈사가 이스트만코닥사의 자회사 에이티스사의 전자편집시스템의 도입 계약을 맺었다. 同社는 IBM PC를 중심으로 워크스테이션을 약 1천 4백대 도입, 신문편집과 광고처리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90년에 1,400대를 연결하는 온라인망이 구성된다. 계약금액은 2천 2백만불이다.

일본

家電VAN 통일약관 결정

가전제품협회와 일본전기전문대형점협회(NEBA)의 家電VAN 「E-VAN」의 통일약관이 지난달에 결정되었다. 이 통일약관은 VAN의 보안과 민사책임에 관한 우정성의 지침에 영향을 주게 된다. 「E-VAN」은 현재 일본 IBM, 일본전기, 후지쯔FIP 등 6개의 VAN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어 각 사업자마다 약관이 다를 경우 발생되어질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전의 약관에서는 데이터가 손실될 때 그 책임이 명확치 못했고 VAN사업자는 사실상 책임이 면제되었었다. 이번 통일약관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후지쯔 OSI, 전제품에 적용

히다찌가 범용기의 M시리즈에서 퍼스컴의 FMR시리즈까지의 모든 컴퓨터제품에 OSI(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를 지원키로 올 2월에 발표한데 이어 후지쯔가 두번째로 지

난 8월 2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후지쯔는 범용기에서 슈퍼컴퓨터, 미니컴, 오피스컴, 워크스테이션, 퍼스널컴퓨터에 이르는 즉, 대형기에서 소형기에 이르기까지 전 계열 품에 국제표준을 적용하게 된다. 동사의 네트워크 체계 FNA의 제품그룹에 OSI를 모두 적용시키며 TCP/IP나 ISDN에의 대응을 하겠다고 하며 FNA5로서 발표하였다. 또한 동사는 OSI제품을 오는 11월 INTAP(정보처리상호기술협회)에 반영시키고 내년 봄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통신위성 新이용법 크로스넷

내년에 3개의 민간통신위성을 발사하게 될 아리안스페이스사의 계획이 결정되었다. 이를 이용하는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용법에 있어 새로운 「크로스넷」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기업이 서로간에 영상정보를 주고 받는 것으로서 위성계 2중사업자인 텔레콤네트가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크로스넷은 이를테면 어느 슈퍼마켓의 점포 안에 설치할 수신 전용공정지구국(TVRO)의 메이커 등이 소비자에게 보내는 새로운 제품안내 정보나 판매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外食산업의 점포의 TVRO에 영화회사나 TV방송국 등이 제작한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기업내에 설치한 TVRO에 금융정보를 공급할 수도 있다. 즉, TV회의 같이 한 기업내의 통신위성 이용만이 아니라 복수의 기업이 서로 얽혀서 이용하자는 것이다. 위성이용면에서도 앞서 있는 미국에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이용법이기도 하다.

우정성 PNET 개시

우편·저금·송금·간이보금·우편연금 등의 사업을 통합하는 우정성의 전락넷「PNET」가 지난 8월 보험분야를 시발점으로 개시되었다. 이번달부터는 하물의 추적시스템도 가동된다. 한편 이외에도 「PNET」은 우편저금 구좌로부터 소포요금을 자동적으로 공제하거나 우체국 창구에서의 여러가지 티켓 발행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어 전국 2만 4천개 우체국을 입체적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전화번호부 DB사업 본격화

NTT가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이용을 본격적으로 진

행하고 있다. 연초에 동경의 23개구의 전화정보를 지도와 결합, 한 장의 CD-ROM 속에 담아 퍼스날컴퓨터로 검색이 가능한 패키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또한 프랑스의 「미니텔」을 본받아서 캡틴시스템을 사용한 전화번호 데이터 제공 실험을 지난 7월말부터 시작했다. 전국의 4천 8백만 가입 전화번호를 모은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는 그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 NTT의 새로운 큰 수익원으로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의 전화번호 DB사업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개인전화번호는 제외되었다.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는 자회사인 「NTT정보개발」이 제공하는 정보는 지금 전국의 90%를 커버하고 있는데 올가을에는 1백%를 수록할 예정이다. 현재 2000업종의 기업, 전화번호, 주소 등이 입력되어 있으며, 수록된 데이터는 1년에 20% 정도 변경되고 있고, 비즈니스용으로는 항상 최신 데이터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NTT정보개발은 NTT로부터 3~4개월마다 최신 데이터를 받고 있다.

한편 이용자는 업종이나 주소 등을 지정해서 조건검색을 할 수 있으며, 검색결과는 자기테이프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리스트의 형태로서 받는다. 요금은 검색조건에 따라 다르나 한건당 10~50엔 정도이다.

국제전화 21% 가격인하

KDD는 서울 올림픽의 개시에 맞추어 지난달 15일부터 국제통신요금을 평균 21.1% 대폭 인하하였다. 이로써 미국과의 요금 격차가 줄어들게 되었다. KDD의 이러한 요금인하는 내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는 제2KDD에 대하여 기선을 제압키 위한 조치로 유저 위주의 요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질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ISDN TV전화 개발

오끼전기공업에서 NTT의 ISDN서비스 「INS네트」에 접속, 이용이 가능한 TV전화를 500만엔 정도의 가격으로 내년 봄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KDD가 개발한 INVITE방식을 채용, 컬러의 動画像과 음성을 압축해서 64K비트/초로 전송하는 시스템. 현재 ISDN에서의 유망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CCITT(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가 92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TV전화의 표준방식을 기대하는 유저들의 현상향과 800

만엔이라는 가격부담으로 그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오끼전기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 LSI화를 촉진하고, 저가격·소형화를 도모, TV전화의 가격을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동경항만 마린넷서비스 개시

「동경항만 마린넷」이 지난달에 600 가입자로서 서비스를 개시했다. 마린넷은 항만지구의 선박이나 차량의 관련사업자 사이의 통신을 주목적으로 한 이동체통신시스템. NTT의 전화공중망과 접속함으로써 항만업자 이외에도 건축, 금융, 상사 등 여러 업종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동경타워에 무선국을 설치, 반경 50km의 지국에 전파를 띄우는 大地域방식으로 가입요금 1만엔, 월액기본료 1만 4백 4십엔. 통화요금은 1분간 20엔이다.

특허청, 電子出願 표준사양 결정

특허청은 서류에 의한 현재의 특허출원을 대신해, 90년부터 도입하는 전자출원의 표준사양을 정했다. 플로피디스크에 의한 출원은 일본공업규격(JIS), 온라인에 의한 출원은 국제표준화기관(ISO)이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OSI)을 채용한다. 앞으로 각지에서 여는 특허행정청의 설명회를 통해 일반에 대한 보급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휴대전화 年内신청

일본휴대전화사는 올해안에 수도권에서의 휴대전화서비스 사업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는 우정성과 수도권에 있어서 휴대전화 이용을 위한 주파수의 할당교섭이 진척되었기 때문이다. 주파수는 이미 지방도시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컨비니언스라디오폰과 같은 주파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시행되어질 휴대전화서비스는 모토롤라방식으로 제2전전계의 자동차전화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모토롤라방식의 터미널과 연결, 전국이용도 가능하다.

NTT 이동체 통신기기 분리

NTT는 88년 결산부터 서비스별 수지를 공개할 예정으로 이에 맞추어 이동체사업부와 통신기기사업부를 분리

할 방침이다. NTT는 지난 7월 1일 이미 데이터통신사업 본부를 분리하여 NTT데이터통신사를 발족시켰다.

세계 250 항공편 정보 제공

전자우편서비스회사 케이디엠(KDM)이 미국의 OAG(Official Airlines Guides)사의 항공편 및 호텔정보의 온라인데이터베이스「OAG·EE」의 게이트웨이 접속을 지난 5월부터 시작했다. 「OAG·EE」는 세계 250개 항공사의 150만건 이상의 운항스케줄과 항공료, 3만건 이상의 호텔 정보 등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출발지와 목적지 등을 입력하면 그 2개지점을 연결하는 직행·연결편을 포함한 스케줄과 가격대비를 검색할 수 있다. 이용료는 1분간 120엔, 계약요금은 2만엔이다.

유럽

BT, 美메트로케스트사 買收

영브리타시텔리컴(BT)이 영국에서 보급시키고 있는 「페이징서비스」와 미국회사의 기술을 결합하여 大西洋을 건너는 페케트벨사업을 개시할 것을 목표로 미국의 페케트벨회사인 메트로케스트사를 매수했다. 메트로케스트사는 전 미국의 82개도시에 인구 8천만명을 커버하는 페케트벨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英프렛시, 호스킹스 買受

영국의 전자메이커 프렛시사가 미국의 마친마리엠타 소유의 대형 컴퓨터서비스회사 영국의 호스킹스를 1억 6천 4백만 파운드에 매수했다. 프렛시사는 컴퓨터소프트부문을 호스킹스에 합쳐서 컴퓨터·통신사업, 특히 VAN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佛 미니텔 일본에 진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프랑스 「미니텔」이 일본에 상륙한다. 미니텔은 일본 필립스가 프랑스 텔리컴

과 협력으로 이미 일본국내에서 터미널 인정을 받았으며 올 가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英BA, 美AA와 CRS문제 和解

컴퓨터좌석예약시스템(CRS)을 둘러싼 美 어메리칸항공(AA)과 英항공(BA)과의 다툼이 해결되었다. 양사가 서로 화해함으로써 AA는 영국에서 BA의 항공권을 자동 발견할 수 있으며 영국의 여행대리점에 CRS를 팔기 쉽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유나이티드항공(UA)과 일본항공(JAL)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전화사 데이터통신분야 공동출자

서독·프랑스의 전신전화회사와 英BT사 등이 데이터통신분야에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유럽 주요전화사들은 국경을 넘어 2개사 이상의 전화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사무수속을 간소화해 이용하기 쉽게 하고, 92년에 이루어질 유럽시장의 통합에 따라 급격히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수요를 겨냥하고 있다.

伊테레토라, 佛마토라와 제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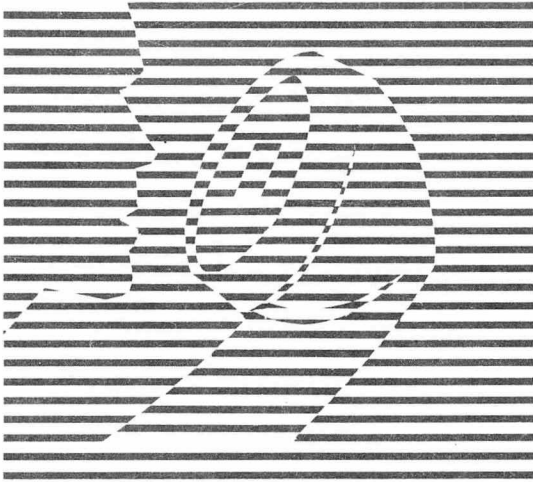
이태리의 복합기업인 피아트 산하의 통신기메이커 테레토라와 프랑스의 마토라커뮤니케이션이 셀전화시스템을 제휴했다. 유럽공동체(EC)에서는 90년대 초기까지 디지털화한 이동체통신 규격을 통일할 예정으로 유럽 전지역의 셀전화는 빠른 속도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OSI 추진 조직

국제표준인 OSI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직이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미·일·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화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OSI를 이용하기 위한 포괄적



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참가회사들은 AT & T, 암달, 유니시스, BT 등 미국, 구라과, 캐나다의 컴퓨터·전화회사 등 8개사. 현재 IBM과 일본의 컴퓨터 메이커들이 참가를 검토중에 있다.

대만, 光전송시스템 부설

대만전신총국이 AT & T에 光전송시스템 부설을 발주하였다. 현재 건설중인 光海底전송시스템은 대만시와 휴양

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팽호섬 사이 140km를 光화이버케이블 연결로 파장은 1.5미크론의 반도체 레이저를 사용한다. 전송용량은 매초 4억 1700만비트.

동남아시아 VAN구성 지원

일본 우정성이 동남아시아 VAN 구축을 위한 「개발도상국 VAN의 효율적 형성 조사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지난 7월말에 태국에서 열렸던 APT(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공동체) 세미나에서 우정성은 「지역내 상호간 전기통신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각 나라 안에서의 VAN을 형성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회는 각국이 짧은 기간에 미국이나 일본 수준의 고도의 VAN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미 있는 전화망을 이용 「퍼스컴통신」에 의한 VAN모델 시스템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예정. 이에 따라 내년 3월을 목표로 호스트 컴퓨터와 터미널에 탑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APT에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하는 멤버는 학술정보센터, 범태평양연구센터, 일본전기, 후지쯔, NTT, 동경화재보험, 후지은행, 일본항공, 태국항공 등이다. ♣

情報通信振興協會 입회안내

情報化 社會의 기반조성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내 전산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업계지원책을 펴나가기 위해 출범한 저희協會는 電算網事業에 관련된 모든 업체 및 기관을 회원으로 맞아들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회원자격 : 정보통신 역무제공업자, 전산망사업자(H/W업체 및 SW업체), 공중통신사업자등 전산망에 관련된 모든 기관 및 업체.
2. 가입비 : 50만원
3. 월회비 : 5만원(분기별로 납부)
4. 가입문의 : 협회사무국(전화 : 796-6444, 796-6555)